韓國言論學報, 59(6) 2015.12.7~40쪽 7

사고 습관과 뉴스 구성:

세월호 사고 사실성 기사 프레임의 문화심리학적 탐구 *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황경호****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2014년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KBS1, MBC, SBS 지상파 3사와 JTBC, TV조선, 채널A 종합편성채널 3사가 보도한 3,991건의 세월호 사고 뉴스의 보도 관점을 문화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해 내용 분석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고 습관의 차이가 세월호 사고 사실성 뉴스의 관점 편향성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내용 분석을 위한 관점 유형은 사고 원인, 사고 예측, 책임 소재 및 귀인, 문제 해결이다. 분석 결과, 사고 예측성, 책임귀인, 문제 해결 주체 등의 일부 항목에서 동양적 사고 습관 편향성이 발견됐다. 사고 예측성에서는 "세월호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식의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후과잉확신 편향'을 보였다. 책임귀인에서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또는 내·외부 상황적 요인이 서로 엇비슷하게 나타나 동양적 사고편향이 부분적으로 발견됐다. 사고의 문제 해결 주체에서는 일화적 프레임 관점보다는 동양적 사고 습관에서 자주 발견되는 주제적 프레임 관점을 월등히 많았다. 이에 반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서는 동양적 사고편향보다 서양적 사고편향이 두드러졌다. 종합하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는 문화심리학적 편향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 방송언론은 보도 규범이나 원칙보다 문화적 배경 차이나 그 사회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진화되고 주조된 사고 습관에 더 지배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심리학이 제안하는 '사람들의 인지 과정이나 사고 습관'이라는 변수가 뉴스 작성 과정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핵심어: 세월호 사고 뉴스, 사실성 기사, 뉴스 프레임, 문화심리학적 편향성, 사고 습관

---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5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skweon@skku.edu, 책임연구원, 제 1저자
*** ws895676@yahoo.co.kr, 교신저자
**** kyungho3506@naver.com

1. 문제 제기

뉴스는 현실을 반영하든 구성하든 기자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뉴스는 현실을 토대로 작성되지만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의 구조는 현실의 특성에 따라 규정되기도 하지만 이를 작성하는 기자의 판단과 관점 그리고 해석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문제는 기자의 이런 사고 체계가 어떻게 산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가치, 판단, 관점, 추론 그리고 해석과 같은 사고 체계(systems of thought)는 그가 사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한다(Nisbett & Masuda, 2003;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Zhou, 2008). 이 연구는 뉴스에 대한 관점(point of view)이 이를 작성하는 기자의 문화적 인식이나 사고 습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받는다면 그 결과가 어떤 형태의 사고 체계로 나타나는지 뉴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뉴스의 대상(object)에 대한 관점은 개념적으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 체계가 아니다. 뉴스는 습관적 보도 관행이나 인지적 사고가 반영된 구성 체계에 가깝다. 뉴스는 결과적으로 기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 관점이 반영되어 기술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자들이 사회적 현실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무의식적 사고 행위가 뉴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재현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동안 공백으로 남았다.

국내 뉴스 선행 연구는 기자 개인 차원에서는 기자의 뉴스 가치 인식, 취재 관행, 교육적 배경, 윤리적 민감도, 프로페셔널리즘의 수준, 언론조직 차원에서는 출입처 제도, 취재 시스템, 인력 운용, 뉴스 생산 방식과 과정, 뉴스룸의 문화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 언론의 역사에 대한 주제 등 보도 규범에 주로 초점을 맞춰 논의했을 뿐, 정작 기자의 인지적 구조와 문화적 배경이 뉴스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박재영 · 이완수 · 노성종, 2009). 문제는 이런 전통적 접근 방식으로는 기사 작성 주체자인 기자 개인의 판단과 사고 과정이 뉴스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스토킹과 그로스(Stocking & Gross, 1989)는 연구자들이 언론 조직에 치중해 뉴스의 편향이나 왜곡을 설명하는 바람에 정작 "기자와 에디터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간과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p. 3).

문화적 규범에 따라 고착된 기자의 머릿속 인지구조가 뉴스를 평가하고 구성하고, 재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차이가 기자의 사고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이론적 근거가 축적된 것도 아니다. 더

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기자가 문화적 사고 습관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묘사할 것이라는 가정은 위험하다.

하지만 스토킹과 그로스(Stocking & Gross, 1989)는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들의 '사전 인식'(initial beliefs) 개념을 적용해 "(기자들은) 객관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조차 자신의 사전 인식을 확인하는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Stocking & Gross, 1989:4)고 주장한다. 이 말은 기자에게도 세상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제약하는 '다양한 습관적 사고방식'(a variety of routine ways of thinking)이 작동한다는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ing)의 보편성을 설명해준다. 리프만(Lippmann, 1922)도 일찍이 기자는 결국 "뭔가를 보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보는" 보편적인 인간이다(p. 81)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배경과 머릿속 인지 구조 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박재영 외, 2009).

스토킹과 그로스 그리고 리프만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세상에 대한 뉴스의 재현 방식은 기자가 오랫동안 학습하고 경험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기자의 인지적 사고편향성은 그가 살아온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Kwon & Moon, 2009)도 있고 문화적 차이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식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결정한다는 실증적 연구도 다수 보고되었다(Nisbett & Miyamoto, 2005; Nisbett & Masuda, 2003).

포울러(Fowler, 2007)의 지적대로 뉴스의 관점은 특정 정보를 더 주목하게 하거나, 의미를 구성하거나, 기억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치개입적이다. 뉴스 작성은 특정 지역, 사회 혹은 국가 속에서 축적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재현하는 행위로 어느 정도의 편향성(bias)은 피할 수 없다(Kwon & Moon, 2009). 이는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 습관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라 어떤 대상을 편향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고, 해석한다는 것을 뜻한다(Nisbett & Masuda, 2003).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면, 사고 습관도 다르게 주조된다는 문화심리학적(cultural psychology) 이론 틀을 적용해 기자가 전달하는 사실성(facticity) 기사에서도 문화적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내 지상파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뉴스가 동양적 사고 관점에서 내용이 편향되게 제시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5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기자의 인지 구조나 사고 습관이 기계적으로 작성되는 사실성 기사에서도[1] 문화심리학적 뉴스 편향성이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둘째는 기자들이 기사를 기술하면서 문화심리학적

사고 습관과 보편적인 보도 규범 가운데 어떤 원칙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는지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셋째는 기자의 문화심리학적 편향성이 국민의 정서적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세월호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사고에 특별히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넷째는 재난사고의 문화심리적 사고 패턴이 시간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문화적 인지 구조가 뉴스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다섯째는 지금까지 문화심리학의 논지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에 의존해왔으나 이 연구는 뉴스 내용 분석을 통해 기자의 문화적 인지편향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문화심리적 습관과 기자의 사고 패턴

기자는 문화적 학습을 통해 인지하고 사고하고, 행동한다(Kwon & Moon, 2009). 기자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동원하는 언어나 사고방식은 모두 그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에 토대를 둔다. 기자나 언론이 국가나 문화권별로 상이한 인식과 해석 틀을 갖는다는 사실은 그간에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 이 연구는 이런 논지에 따라 "인간의 사전 인식은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른가 그리고 차별적 인지구조가 존재한다면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푸는 데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 문화심리학 이론에 주목했다. 문화심리학은 동양과 서양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 사회 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두 지역에서 장기간 사회화 과정을 겪은 개인은 사물을 상이하게 추론한다는 진화론적 설명에 바탕을 둔다(박재영 외, 2009).

문화심리학 이론을 집대성한 니스벳(Nisbett, 2004)은 다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인간이 이슈(또는 사건)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서양인의 분석적 사고와 동양인의 종합적 사고로, 이슈의 원인을 설명하는 패턴을 서양인의 개인 중심적 사고와 동양인의 상황 중심적 사고로, 논리적 추론 방식을 서양인의 형식 논리와 동양인의 변증법적 논증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이슈의 원인 판단에서도 서양인은 개인에게 귀인(歸因)하여 기본적 귀인 오류를 자주 범하지만 반대로 동양인은 상황에 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슈에 대한 입장에서도 서양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자택일의 단일 입장을 취하는

1)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는 모두 순수 스트레이트 기사는 아니다. 방송 뉴스는 그 특성상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해설, 그리고 의견기사가 함께 혼용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동양인은 양비쌍시(兩非雙是) 론적 입장을 취하는 모순적 경향이 강한 편이다. 또한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 즉 처음부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경향을 더 자주 보인다(박재영 외, 2009; 최인철, 2007;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귀인패턴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고 발생 전에 이런저런 요인이 바뀌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이른바 '사후가정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양인은 상황적 요인을, 서양인은 개인적 요인을 그 이유로 들었다(Morris & Peng, 1994).

하지만 기본적 귀인 오류나 사후과잉확신 편향과 같은 인간의 판단과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은 저널리즘 연구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박재영 외, 2009). 이는 기자들의 문화심리적 인지 구조에 따라 뉴스가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물론 뉴스가 기자 개인의 가치와 철학, 경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게 선별되고 구성된다는 관행 연구는 있었지만(Shoemaker & Reese, 1996) 뉴스에 대한 관점이 기자의 문화적 사고 습관의 차이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적다. 예외적으로 북핵 이슈,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슈를 다룬 박재영, 이완수 그리고 노성종(2009)의 연구는 이슈의 속성에 따라 문화심리학적 편향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한·미 신문의 의견 기사에 나타난 문화심리학적 논지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완수와 배재영(2014)의 연구는 문화심리학적 편향성이 뚜렷이 드러난 연구 사례에 속한다. 이들 연구자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내 신문의 칼럼, 사설 등 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문화심리학적 편향성을 관찰한 결과 한국 기자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개인 중심적 분석 사고보다는 집단 중심적 종합 사고로, 사고 결과에 대한 예측에서는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천재(天災)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론적 해석을 내리는 '사후과잉확신 편향성'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나 귀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는 식의 사고보다는 쌍방 모두에 있다는 이른바 양비론식 사고편향성이 더 두드러졌다.

2) 습관적 사고와 사실성 기사 구성

문제는 기자가 육하원칙이라는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사실성 기사가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문화심리학자인 리처드 니스벳(R. Nisbette)과 타카히코 마스다(Masuda, 2003)는 사람들은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라 사물을 다르게 주목하고 인식하며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기술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

람들이 사물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보다는 인지심리학적으로 고착된 무의식적 행위를 표현 과정에서도 투사한다는 것을 뜻한다(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한(Han, 2010)도 문화적 차이가 기억, 환경, 사회적 맥락, 주관적 지식, 신념은 물론 언어, 자각, 재현 등과 같은 통합적 인지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p. 287). 미디어 사회학자인 마이클 셧슨(M. Schudson, 2011)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자의 작업 행위와 연결해 설명하면서 기자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맥락에 기초해 뉴스를 작성하며 뉴스는 바로 사회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생산된다고 말한다. 이들 일군의 연구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상당 부분 표준화된 사실성 기사에서조차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백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고 이슈 보도에서도 사고 원인과 해결 방법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문화적 규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김왕근, 2014). 실제로 세월호 사고 보도 과정에 표출된 사회적 갈등을 보면 인재적 성격, 사회 집단의 안전불감증, 집단의 공동 책임과 같은 한국적 문화성이 특별히 두드러진 편이었다. 이는 국내 언론들이 세월호 사고의 진단, 평가 그리고 예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분히 집단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문제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이완수 · 배재영, 2014).

이 연구는 뉴스의 사실성(facticity)과 보편성, 육하원칙과 같은 뉴스 작성의 일반적 관행 그리고 사실의 검증을 거친 사실성 기사에서도 기자의 습관적 사고가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주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사 작성 과정에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는 사실성 기사에서 문화적 사고 체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박재영과 그의 연구 동료들(2009)의 주장대로 사실성 기사는 의견성 기사와는 달리 기자의 사고 습관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그들(기자)이 한국에서 활동하든 미국에서 활동하든 기사 작성 과정에 근본적 차이는 없다. 또한 동양의 기자와 서양의 기자가 이해하는 뉴스의 가치나 기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자의 견해는 다르다. 다수의 연구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주목, 인식 그리고 인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구조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구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Nisbett & Masuda, 2003;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Nisbett & Miyamoto, 2005). 그 대상에 대한 관점은 메시지 유형(예, 스트레이트 기사, 의견 기사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전달하는 해석 주체의 인지 구조가 어떤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두는가에 달렸다는 것이다. 문화가 뉴스의 구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많다(Gunaratne, 2000; Nisbett & Miyamoto, 2005; Zhou, 2008). 실제로 모리스와 펑(Morris & Peng, 1994)은 문화심리학자로는 처음으로 사실성 기사를 대

상으로 동서양 언론이 총기 사고 원인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귀인하는지 문화적 배경 차이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 신문은 가해자의 개인적 결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 신문은 가해자를 둘러싼 상황적 요인에 귀인해 서로 다른 사고(思考) 패턴을 보였다. 윈필드와 동료들(Winfield, Mizuno, & Beaudoin, 2000)도 서양 언론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동양 언론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작동한다고 간주하고 서양의 개별성과 동양의 집단성이 뉴스 내용구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로 설명한다. 그럼에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직업인인 기자가 뉴스작성 과정에 문화적 사고 습관의 영향을 실제로 받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3) 사회문화적 공명, 관점 그리고 뉴스 프레임

뉴스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화적 공명성(cultural resonance) 개념이다. 뉴스는 그 사회 구성원 또는 집단 상호 간에 문화적 의미 공유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뉴스 구성 과정에 제시되는 관점은 기자의 개인적 사고나 가치가 수용자의 사고나 가치와 끊임없이 교환하고 공유하는 공명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다(Scheufele, 2000; Zhou, 2008). 뉴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생산된 지식과 사고의 산물이며 문화적 배경에 따라 통일적으로 수렴된다(Nisbett, 2004). 갬슨과 모딜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도 미디어 보도 관행과 문화적 공명 등이 뉴스에 대한 그 사회의 보편적 시각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 중요하게 매개하는 것이 바로 사회문화적 배경이며 이런 토대 위에서 그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사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지식에 기반을 두고 행동한다는 반두라(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도 이런 논거를 뒷받침한다.

뉴스를 만드는 기자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기자 집단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된 사고와 선유 경험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게 된다(Scheufele, 2000). 이동훈과 김원용(2012)도 미디어 관행과 함께 사회문화적 맥락이 뉴스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았다. 기자나 언론사는 사회 문제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 외부 현실 요인들을 끊임없이 반영하거나 고려한다고 설명한다(Shoemaker & Reese, 1996). 특정 뉴스의 관점은 결국 문화적 공명에 따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도시문화와 농촌문화, 상업문화와 농경문화, 서양문화와 동양문화 등 문화적 특징이나 구조의 상이성에 따라 뉴스의 프레임 특성이 다르게 재현된다는 뜻이다.

해석공동체로서 기자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문화적 토양에서 무의식적으로 침잠(侵潛)되는 지배적 가치와 아이디어를 뉴스의 형태로 담론화한다고 볼 수 있다(Kwon & Moon, 2009). 갠즈(Gans, 1979)는 이를 '지속적 가치'(enduring values)로 불렀다. 지속적 가치는 어떤 사회가 오랫동안 형성한 습관적 사고로 뉴스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Berkowitz & TerKeust, 1999), 특정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닌 공적 가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Kwon & Moon, 2009). 예를 들어, 집단 지향성 문화에서는 집단 응집성, 조화 그리고 통합이, 개인 지향성 문화에서는 개별 특수성, 개성 그리고 논쟁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미디어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뉴스 프레임도 결국은 상당 부분 문화적 요인이 결정한다. 문화심리학 연구의 핵심 개념인 관점(point of view), 사고 체계(system of thought), 사고 스타일(thinking styles), 주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은 넓게 보면 뉴스 프레임의 영역이다. 어떤 대상을 현저하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향의 관점이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 문화적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다. 뉴스 프레임을 "기자가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해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안에 현저하게 강조하는 작업행위"(pp. 56-57)로 본 엔트만의 관점도 결국은 뉴스의 사회문화적 맥락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Entman, 1993).

블럼러와 구레비치(Blumler & Gurevitch, 1975)는 뉴스 프레임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고 보았고 할린과 맨치니(Hallin & Mancini, 2004)도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적 사고 습관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틀린(Gitlin, 1980)은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 뉴스 생산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사회현실에 대한 기자의 인식과 사고 체계가 언어와 영상을 통해 뉴스를 일정한 패턴으로 조직하고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방송 뉴스 프레임 역시 사회문화적 속성을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Kwon & Moon, 2009). 그런 점에서 기자의 관점이나 뉴스 프레임은 문화적 공명성 속에서 형성되면 특정 사회문화가 지배한 가치나 이념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Yang, 2003).

4) 사고이슈와 관점의 변화

사회적 이슈의 현저성은 대상의 현저성, 주목도, 언론의 선택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Eyal, 1981). 그러나 언론이 특정 이슈의 속성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현저성은 줄어든다. 언론이 끊임없이 초기 관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이슈의 현저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다운스(Downs, 1972)는 이슈 주목 사이클(issue-attention cycle)이라는 개념을 통해 ① 사전문제, ② 문제 인식, ③ 비용 인식, ④ 관심 소멸, ⑤ 사후 문제 처리의 5단계에 걸쳐 특정 이슈에 대한 주목에 변화를 보인다고 말한다(이완수 · 심재웅 · 심재철, 2008 참조).

이슈의 현저성은 큰 틀에서 보면 이슈 초기 출현, 관심도 끌기, 이슈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어떤 이슈의 대상(objects)이나 속성(attributes)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은 언론이 이를 얼마나 극적이고 흥미롭고 자주 보도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Downs, 1972). 이슈의 현저성 수준은 결국 언론이 제시한 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제시된 관점이 시간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전이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치이와 맥콤스(Chyi & McCombs, 2004)는 언론이 이슈의 현저성을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전략에 주목해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들 연구자는 1999년 미국 콜럼바인(Columbine) 고등학교 총기 사고를 시간 차원(과거, 현재, 미래)과 공간 차원〔개인, 커뮤니티, 주(州), 사회, 국제〕으로 나눠 관련 이슈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무서트와 카(Muschert & Carr, 2006)는 치이와 맥콤스의 시공간 프레임 개념을 적용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9건의 주요 총기 사고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디미트로바(Dimitrova, 2006)는 〈뉴욕타임스〉 온라인 매체에 보도된 2003년 이라크 전쟁 사례를 대상으로 아이엔가(Iyengar, 1991)가 개념화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이 사건 진행 과정 동안 어떻게 현저하게 구성되는지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이완수, 심재웅, 심재철(2008)이 유일하게 치이와 맥콤스가 제시한 시공간 프레임이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고 보도 진행 과정에 어떻게 구성되어 나타났는지 연구했다. 이들 연구는 모두 특정 사고 이슈의 미디어 프레임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특정 사회의 문화적 사고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문화심리학자는 문화적 사고 습관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말한다(Nisbett et al., 2001). 따라서 이 연구는 뉴스 보도 과정에 뉴스 프레임이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더라도 사회문화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자는 개인의 철학이나 가치, 언론사 내부의 보도 규범,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념에 따라 뉴스를 상이하게 다룬다. 하지만 이를 문화본질주의 차원으로 확장해 보면 기자는 그들이 사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둔 사고 습관을 벗어나지 않는다. 가령, 한국 사람이 때에 따라 일식이나 중식을 그리고 서양식을 번갈아 즐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식이라는 식습

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화심리학이론의 창시자인 니스벳(Nisbett, 2004)도 오래전에 동료 연구자인 로스(Nissbett & Loss, 1980)와 함께 쓴 *Human Inference*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의 추론이나 인지 방식은 문화적 차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사고가 문화에 따라 고정되었다는 이른바 "문화본질주의"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람의 사고나 인지 그리고 추론은 문화적 경험과 이해를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점차 수렴된다는 "문화수렴주의"를 지지한다. 이 연구도 문화적 차이가 기자의 사고 차이를 낳고 나아가 뉴스의 프레임 구성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거를 절대 명제로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반대로 문화심리학적 현상이 비교적 잘 나타나는 국가 재난 사고를 사례로 문화적 사고 습관이 뉴스 구성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본질주의와 문화수렴주의 관점에서 뉴스 구성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 공명성이 사고 뉴스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경험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엔트만(Entman, 1993)과 아이엔가(Iyengar, 1991)의 프레임 개념과 문화심리학적 이론을 연결해 세월호 사고 뉴스의 사회문화적 해석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엔트만은 언론이 사회현실을 설명할 때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프레임, 원인해석(causal interpretation) 프레임, 도덕적 평가(moral judgement) 프레임, 그리고 사후처방(treatment recommendation) 프레임의 개념을 동원한다고 말한다. 이와는 달리 아이엔가(Iyengar, 1991)는 언론이 다루는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를 크게 개인에 두는 일화적(episodic) 프레임과 사회나 제도에 두는 주제적(thematic) 프레임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엔트만과 아이엔가의 뉴스 프레임 개념은 문화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어떤 사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점 또는 인지방식과 밀접하다. 사고의 발생과 진행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원인, 책임, 문제 해결 주체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세월호 침몰사고도 처음부터 원인, 책임, 해결 주체가 핵심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사고의 인과론적 귀인과 책임에 대한 뉴스의 프레임 체계를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

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에 대한 진단, 징후, 평가, 처방은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문화심리학적 이론에 기대어 분석하는 것은 사고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박재영과 이완수, 그리고 노성종(2009)이 북핵 이슈,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 3대 이슈를 중심으로 한·미 신문의 의견 기사에 나타난 양국 기자의 문화적 사고 습관의 차이를 검정한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막대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국가적 재난 사고 뉴스가 문화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편향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이 연구는 문화적 차이가 사고 습관의 차이를 낳고 사고 습관의 차이가 뉴스 구성의 차이를 낳는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심리적 배경이 뉴스 프레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3사(JTBC, TV조선, 채널A)의 세월호 사고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에 동양적 사고편향성이 재현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사고 습관의 차이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비교 적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이론적 측면에서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관점을 취한다는 다수의 연구를 참고했다(Bae, 2000; 양승찬·이미나·서희정, 2014; 조은영·유세경, 2014). 선행 연구 가운데 조은영과 유세경(2014)의 연구는 공통 이슈에 대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의 다양성을 보도 주제의 다양성, 취재원의 다양성, 보도 관점의 다양성으로 각각 구분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지상파 채널과 새롭게 등장한 종합편성채널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두 번째는 현실적 측면에서이다. 세월호 사고 보도에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내용과 형식 그리고 사상적 관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는 주장에 근거했다(김호성 외, 2014).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이유는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문화심리학적 관점이 보도 매체에 관계없이 유사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첫째, 세월호 사고 방송 보도에서 사고 원인, 사고 예측, 책임 소재, 책임 귀인, 문제 해결 프레임이 동양적 문화 편향성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세월호 사고를 보도하면서 동양적 문화 편향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문화적 인지 편향성이 사고 수습 과정에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 문제 1-1: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어떠한가?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사고 패턴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1-2: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 연구 문제 2-1: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예측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어떠한가?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사고 패턴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2: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예측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 연구 문제 3-1: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어떠한가?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사고 패턴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3-2: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 연구 문제 4-1: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 귀인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어떠한가?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사고 패턴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4-2: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 귀인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 연구 문제 5-1: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어떠한가?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사고 패턴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5-2: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한국 기자의 사고 패턴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4.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연구자들은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3사(JTBC, TV조선, 채널A)의 프라임타임 시간대인 8~9시 저녁 종합뉴스에서 보도된 세월호 사고관련 보도 내용물을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분석을 위한 뉴스 아이템 수집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활용했다. 이런 경로로 추출된 분석 대상 기사는 모두 4,023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시청이 불가능한 기사는 제외하고 최종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기사는 3,991건이었다.

2) 분석 기간

분석 기간은 세월호가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이며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3사(JTBC, TV조선, 채널A)의 저녁 종합뉴스 시간에 보도된 세월호 사고 뉴스 전부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한다. 이들 뉴스는 일반 취재 보도, 특집 보도, 기획 보도, 단독 보도, 특별 대담, 속보 등의 기사를 포함하는 사실성 기사들이다. 방송 뉴스는 일부 해설위원이 진행하는 해설 기사나 칼럼, 사설 등 신문의 오피니언 기사와는 달리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와 분석 기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한 방송 뉴스는 신문과 같은 순수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스트레이트형 기사이면서 동시에 해설 그리고 의견이 결합된 혼합형 기사도 포함되었다.

3) 분석 채널별 세월호 사고 보도 건수 및 변화

채널별 세월호 사고 보도 건수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2,097건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종합편성채널 3사(JTBC, TV조선, 채널A)는 1,894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절대적인 보도 건수에 있어서는 지상파 3사가 종합편성채널 3사에 비해 203건이 더 많았다.

세월호 사고 보도 건수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결과(〈그림 1〉 참조),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 간의 전체적인 보도 건수의 변화에 차이를 보였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세월호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4월 19일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85건을 웃도는 보도량을 나타냈으나 이 시점을 정점으로 보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종합편성

표 1. 보도채널별 세월호 사고 보도 건수

보도일자	지상파			소계	종합편성채널			소계
	KBS1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4.16	59	64	48	171	21	18	9	48
4.17	70	62	55	187	33	35	22	90
4.18	68	61	62	191	30	41	28	99
4.19	67	64	61	192	30	39	20	89
4.20	59	70	29	158	30	44	17	91
4.21	30	44	26	100	32	32	23	87
4.22	30	42	28	100	25	33	25	83
4.23	31	25	25	81	32	32	27	91
4.24	28	25	23	76	27	30	21	78
4.25	26	23	20	69	31	19	16	66
4.26	20	15	15	50	20	25	17	62
4.27	22	18	16	56	22	25	17	64
4.28	26	23	17	66	26	20	17	63
4.29	19	17	16	52	23	23	21	67
4.30	22	22	16	60	24	21	17	62
5.01	21	17	18	56	25	25	18	68
5.02	9	18	13	40	20	23	22	65
5.03	8	11	5	24	14	16	9	39
5.04	10	6	8	24	14	17	16	47
5.05	13	8	9	30	19	16	14	49
5.06	16	13	10	39	21	17	17	55
5.07	10	12	7	29	18	17	19	54
5.08	10	7	7	24	16	11	16	43
5.09	12	10	9	31	18	17	13	48
5.10	6	6	8	20	13	23	14	50
5.11	7	6	6	19	11	11	12	34
5.12	11	8	8	27	11	10	14	35
5.13	8	9	6	23	14	12	10	36
5.14	9	9	7	25	17	10	14	41
5.15	21	10	18	49	15	11	16	42
5.16	9	10	9	28	18	13	17	48
소계	757	735	605	2,097	670	686	538	1,894
합계	2,097				1,894			
	총 3,991건							

주: 보도채널별 보도 건수 합계는 시청이 불가능한 기사(32건)를 제외한 총 3,991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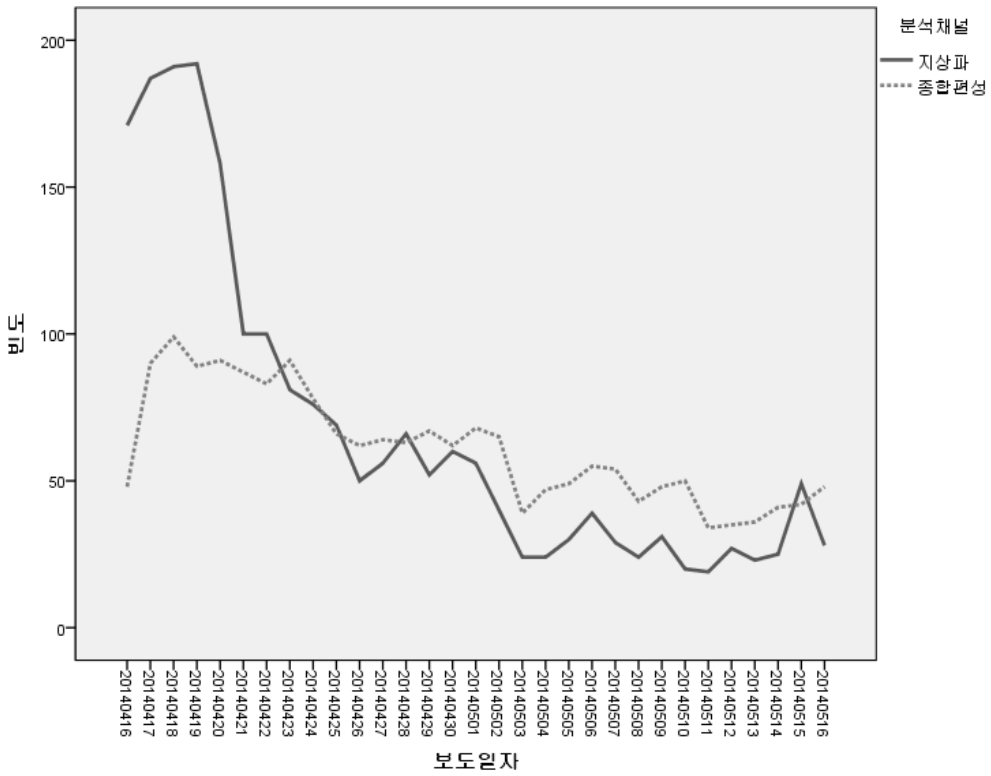

그림 1.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세월호 사고 보도 건수의 변화

채널 3사는 지상파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도량의 증감이 다소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 간의 보도 건수의 변화에 공통적인 흐름도 존재했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 모두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뉴스가 특보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고 발생 첫째 주에 보도가 집중되었으나 이후 세월호 실종자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특보 체제가 해제되고 보도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4) 프레이밍 유형 분석

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에는 보통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Semetko & Valkenberg, 2000). 첫 번째는 귀납적 접근 방법으로 정형화된 프레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시각으로 뉴스에 나타난 프레임들을 나열하고 그 의미를 정해나가는 방법이다(강내원, 2002). 이 방법은 이슈에서 형성되는 많은 프레임을 추적해나가면서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연구 결과의 해석과

신뢰도가 애매한 점이 단점이다.

두 번째 방법인 연역적 접근 방법은 기존에 정해진 프레임 틀이나 표준화된 프레임 지표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역적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 많은 연구자는 정형화된 틀을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보다 신뢰할 만한 프레임을 측정할 수 있고 큰 샘플을 가지고도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반복 가능하며 매체 간 또는 매체 내의 프레임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Neuman et al., 1992; Semetko & Valkenberg, 2000; Valkenburg et al., 1999).

5) 프레임 유형 도출

본 연구는 위기 상황 및 언론 보도 프레임 유형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프레임 유형을 재구성하였으며 논의된 프레임 유형은 연역적 접근 방식을 통해 추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얻어낸 프레임 유형 가운데 엔트만(Entman, 1993)과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가 개발한 재난 사고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사고 원인, 사고 예측, 책임 귀인, 책임 소재, 문제 해결 요소 프레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문제 해결 프레임은 아이엔가(Iyenga, 1991)가 제시한 주제 중심 프레임과 일화 중심 프레임을 분석틀로 활용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문화심리학 연구에서 흔히 다뤄지는 사고(혹은 사건)의 원인 소재, 책임 귀인, 해결 방법의 개념도 함께 차용했다.

(1) 프레임 유형 및 정의

위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고 원인, 사고 예측, 책임 소재, 책임 귀인, 문제 해결 등 5가지 프레임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들 5가지 유형은 어떤 재난 사고의 발생,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사고의 전체 지형을 파악하는 데 타당한 프레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프레임 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원인 프레임

사고 원인 프레임은 동양인의 사고 습관인 상황적 요인과 서양인의 사고 습관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상황적 요인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맥락적이며 상호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개인적 요인은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개별적 속성이나 특정 사안 하나의 원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② 사고 예측 프레임

사고 예측 프레임은 동양인의 사고 습관인 예측 가능성과 서양인의 사고 습관인 예측 불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예측 가능은 사고 발생이 예견되었거나 사고가 일어날 것을 마치 사전에 인지한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예측 불가능은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강조하거나 사고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해 깜짝 놀라는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③ 책임 소재 프레임

책임 소재 프레임은 양비론적 입장(동양인의 사고 습관)과 단일 입장(사양인의 사고 습관)으로 구분하였다. 양비론적 입장(모순율)은 책임이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에게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단일 입장(비모순율)은 책임이 한쪽에 있다는 일방향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④ 책임 귀인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은 상황적(외부) 요인, 개인적(내부)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적(내·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상황적(외부) 요인은 사고의 책임을 국민 의식, 사회 관행, 정부 제도나 정책 등 거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개인적(내부) 요인은 사고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 맞추는 미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상호작용적(내·외부) 요인은 사고의 책임을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아우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⑤ 문제 해결 프레임

문제 해결 관점은 일화적 프레임 관점과 주제적 프레임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일화적 프레임 관점은 문제 해결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이다. 즉, 사고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조직)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주제적 프레임 관점은 문제를 사회 공동체, 정부(대통령 포함), 국가 등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이다. 즉,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위의 프레임 유형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고(事故) 구조에 대한 프레임 유형 및 정의

프레임 유형	정의
사고 원인 관점	• 상황적 요인: 사고의 원인이 종합적이고 맥락적이며 상호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예: 사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 • 개인적 요인: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개별적인 속성이나 특정 사안 하나의 원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예: 특정 개인의 비도덕성, 비윤리성, 몰염치 등의 내용)
사고 예측 관점	• 예측 가능: 사고가 일어날 것을 마치 사전에 인지한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예: 예고된 인재(人災),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 등] • 예측 불가능: 사고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전혀 예상치 못해 깜짝 놀라는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예: 천재지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언급 등)
책임 소재 관점	• 양비론적 입장(모순율): 책임이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에게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경우(예: 사고 책임이나 구조 문제가 해운회사, 사회, 정부, 국가 등 양쪽 또는 모두에게 있다는 식의 내용) • 단일 입장(비모순율):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는 일방향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예: 이준석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 구조대원, 학교당국, 해경, 정부 등 어떤 하나의 주체에 책임을 두고 기술한 내용)
책임 귀인 관점	• 상황(외부): 사고의 책임을 국민 의식, 사회 관행, 정부 제도나 정책 등 거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경우 • 개인(내부): 사고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 맞추는 미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경우 • 상호작용(내 · 외부): 사고의 책임을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아우르는 경우
문제 해결 관점	• 일화적 프레임: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예: 세월호 사건은 유병언 일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 등) • 주제적 프레임: 문제를 사회, 대통령, 정부, 국가 등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2) 사고(事故) 이슈에 대한 동서양 사고(思考) 습관 개념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된 관점 유형 가운데 사고 원인은 동양인의 사고 습관인 상황적 요인과 서양인의 사고 습관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해 어떤 관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사고 예측은 동양인의 사고 습관인 예측 가능성과 서양인의 사고 습관인 예측 불가능성으로 구분해 어떤 관점 쪽으로 더 편향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책임 소재는 동양인의 양비론적 입장과 서양인의 단일 입장 편향성에 대한 비중을, 책임 귀인은 동양인의 상황적(외부) 요인과 서양인의 개인적(내부) 요인 그리고 이를 문화적으로 수렴하는 상호작용적(내 · 외부) 요인의 편향성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찬가지로 문제 해결 프레임은 문제 해결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서양인의 일화적 관점과 문제 해결 주체를 정부, 국가 등 사회 공동체에 돌리는 동양인의 주제적 관점으로 구분해 어떤 쪽으로 더 편향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문회심리학에서의 인식 틀인 관점(point of view)과 저널리즘에서의 구성 틀인 프레임(frame)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혼용해서 사용한다.

6) 신뢰도 수준 측정

이 연구를 위해 5명의 코더가 참여했다. 이들 코더는 서울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한 언론학 전공 학생들로 내용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배웠거나 직접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었다. 이 연구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생(여) 1명, 석사과정생(여) 2명, 석사과정생(남) 1명 그리고 학사 졸업생(여) 1명 등 모두 5명의 코더들이 코딩 과정에 참여했다.

코더 간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총 3,991건의 뉴스 아이템 가운데 약 4%에 해당하는 155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5인의 코더가 공동으로 코딩을 실시했다.[2] APPA(Average pairwise percent agreement)를 활용하여 코더 간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 평균 .73에서 .93 사이의 일치도를 나타내 5명 코더 간의 일치도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5. 연구 결과

1)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의 사고 원인 관점 및 변화

연구 문제 1-1은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원인 프레임의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양인의 사고 습관인 상황적 요인과 서양인의 사고 습관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에 더 편향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방송사의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성 기사 프레임 중 개인적 요인 491건(59.7%)이 상황적 요인 332건(40.3%)보다 다소 많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사고 원인 프레임 사용의 차별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사고 원인 프레임 사용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 방송사별 사고 원인 프레임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 23.478$, $p = .000$]. 지상파 3사의 경우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각각 47.0%, 53%씩 균형 있게 사용했지만 종합편성채널 3사는 개인적 요인(70%)을 지배적으로 사용했다. 결국 사고 원인 프레임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 3사가 더 서양인의 사고 습관 보도 경향을 보였다.

---

2) 일반적으로 코더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뉴스 아이템 중 10% 이상의 뉴스 아이템을 추출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량의 방대함 등을 고려해 전체 뉴스 아이템 3,991건 중 155건(약 4%)을 추출하였다. 무작위로 추출된 뉴스 아이템들은 ReCal(reliability calculation for the masses) 웹 서비스(Freelon, 2010)를 통해 정밀한 코더 간 신뢰도 측정이 이뤄졌다.

연구 문제 1-2는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기자의 사고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2〉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에 나타난 사고 원인 프레임 사용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지상

표 3.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사고 원인 프레임

구분	사고 원인 프레임		계
	상황적 요인	개인적 요인	
지상파	235(47)	265(53)	500(100)
종합편성채널	97(30)	226(70)	323(100)
계	332(40.3)	491(59.7)	823(100)

주: 괄호 안은 사고 원인 프레임의 상대적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chi^2(1) = 23.478,\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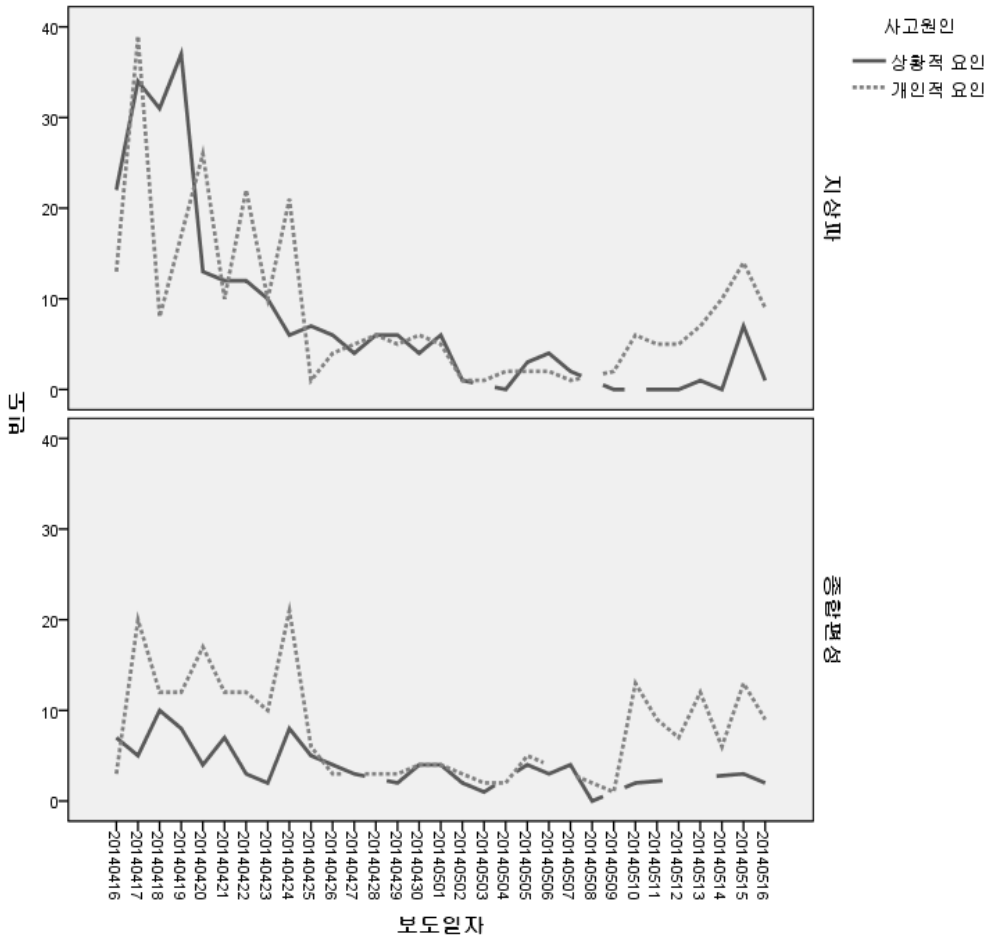

그림 2.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사고 원인 프레임의 변화

파 3사의 경우 세월호 사고 초기에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사용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으나 사고 중반에는 균형 있게 사용하였고 사고 후반에는 개인적 요인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3사의 경우 세월호 사고 초기에는 개인적 요인이 주로 사용되었고 사고 중반에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균형 있게 사용되었으며 사고 후반에는 개인적 요인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송을 포함해 국내 언론이 초기에 사고 원인과 구조현장에 집중하다가 뒤로 오면서 선주인 유병언 일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귀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모두 사고 원인에서는 프레임이 일관되게 나타난 편은 아니다. 지상파에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사고 초기에는 동양적 사고 패턴인 상황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점차 개인적 요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 문화심리학적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2)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의 사고 예측 프레임 및 변화

연구 문제 2-1는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예측 프레임의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양인의 사고 습관인 예측 가능성과 서양인의 사고 습관인 예측 불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에 더 편향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방송사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는 사고 예측 프레임 중 예측 가능성이 220건(84.9%)으로 예측 불가능성 39건(15.1%)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사고 예측 프레임 사용의 차별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사고 예측 프레임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방송사에 따른 사고 예측 프레임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 5.393$, $p = .020$].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 모두 사고 예측 프레임 중 예측 가능성을 각각 81.5%, 92.6%씩 지배적으로 사용했다. 결국 사고 예측 프레임 차원에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는 동양적 사고 습관의 보도 경향을 보였다.

연구 문제 2-2는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사고 예측에 대한 기자의 사고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3〉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에 나타난 사고 예측 프레임 사용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세월호 사고 초기에는 예측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고 중반과 후반에도 예측 가능성이 예측 불가능성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다. 종합편성채널 3사의 경우 역시 세월호 사고 초기에는 예측 가능성이 주로 사용되었고, 사고 중반과

후반에도 예측 가능성이 예측 불가능성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고 예측에서는 동양적 사고 패턴인 예측 가능성 관점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사고 예측 프레임

구분	사고 예측 프레임		계
	예측 가능성	예측 불가능성	
지상파	145(81.5)	33(18.5)	178(100)
종합편성채널	75(92.6)	6(7.4)	81(100)
계	220(84.9)	39(15.1)	259(100)

주: 괄호 안은 사고 예측 관점의 상대적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chi^2(1) = 5.393,\ p =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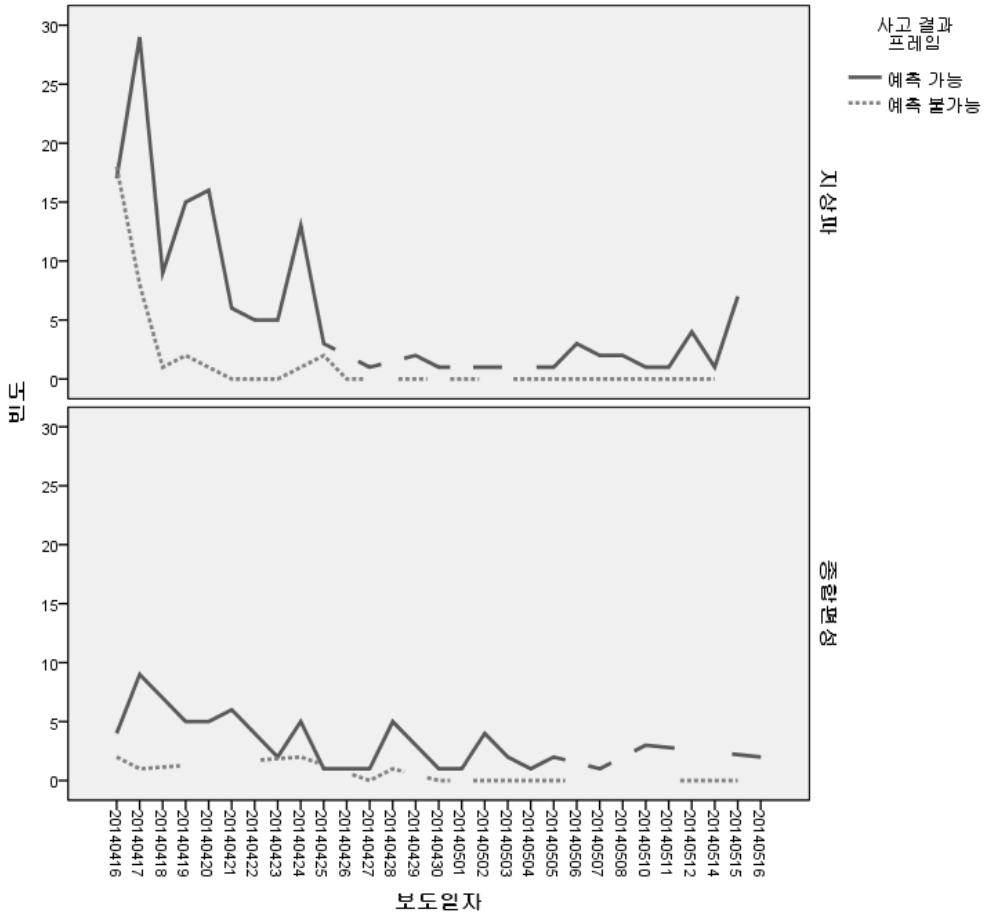

그림 3.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사고 예측 프레임의 변화

3)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의 책임 소재 프레임 및 변화

연구 문제 3-1은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 소재 프레임의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양인의 사고 습관인 양비론적 입장과 서양인의 사고 습관인 단일

표 5.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책임 소재 프레임

구분	책임 소재 프레임		계
	양비론적 입장	단일 입장	
지상파	238(20.8)	908(79.2)	1,146(100)
종합편성채널	217(18.5)	956(81.5)	1,173(100)
계	455(19.6)	1,864(80.4)	2,319(100)

주: 괄호 안은 책임 소재 프레임의 상대적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chi^2(1) = 1.891,\ p =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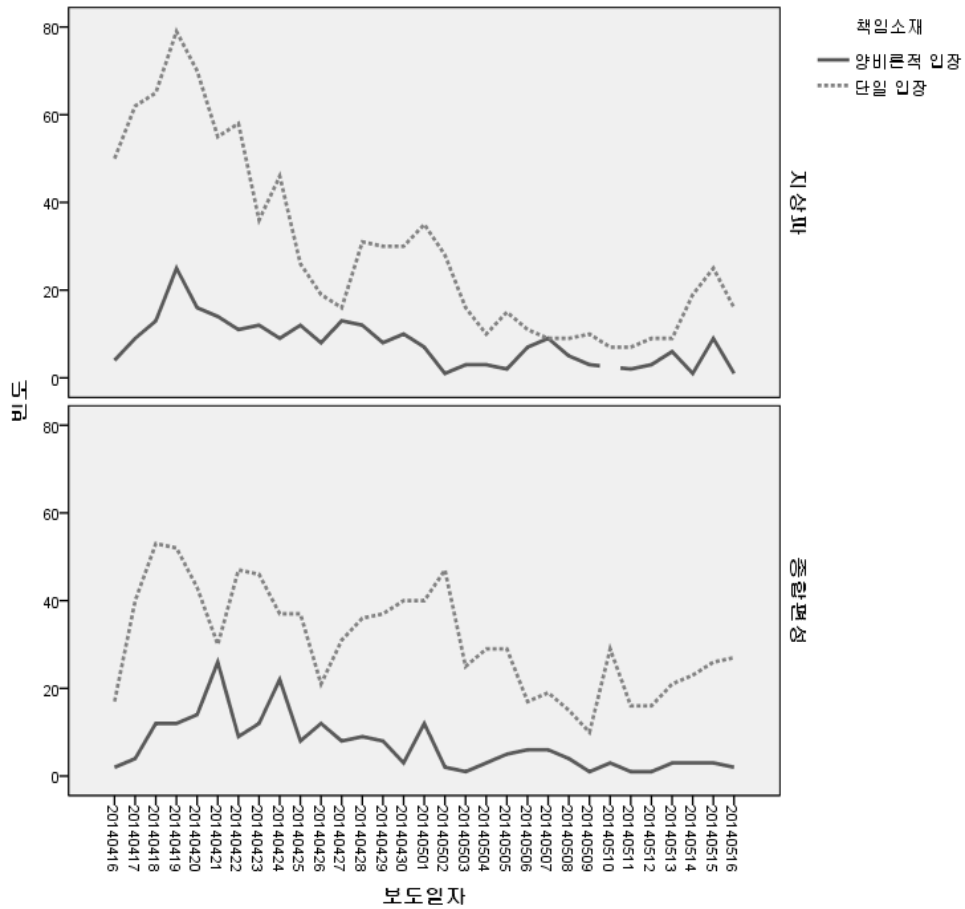

그림 4.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책임 소재 프레임의 변화

입장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에 더 편향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방송사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는 책임 소재 프레임 중 단일 입장(1,864건 · 80.4%)을 양비론적 입장(455건 · 19.6%)보다 많이 사용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책임 소재 프레임 사용의 차별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책임 소재 프레임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방송사에 따른 책임 소재 프레임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 1.891$, $p = .169$〕.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 모두 책임 소재 프레임 중 단일 입장을 각각 79.2%, 81.5%씩 지배적으로 사용했다. 결국 책임 소재 프레임 차원에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는 서양인의 사고 습관 보도 경향을 보였다.

연구 문제 3-2는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기자의 사고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4〉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에 나타난 책임 소재 프레임 사용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세월호 사고 초기에는 단일 입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고 중반과 후반에도 단일 입장이 양비론적 입장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다. 종합편성채널 3사의 경우에는 사고 초기, 중반, 후반 모두 단일 입장을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사고 패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서양적 사고인 단일 입장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4)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의 책임귀인 관점 및 변화

연구 문제 4-1은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귀인 프레임의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황적(외부) 요인, 개인적(내부) 요인, 상호작용적(내 ·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에 더 편향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방송사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는 책임귀인 프레임 중 개인적(내부) 요인 918건(50%), 상황적(외부) 요인 753건(41%), 상호작용적(내 · 외부) 요인 164건(8.9%) 등의 순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책임귀인 프레임 사용의 차별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책임귀인 프레임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방송사에 따른 책임 소재 프레임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 = 11.174$, $p = .004$〕.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 모두 책임귀인 프레임 중 개인적(내부) 요인을 각각 49.8%, 50.3%씩 가장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상황적 요인(외부) 역시 지상파 3사에서 43.5%, 종합편성채널 3사에서 38.8%가 사용되어 개인적

(내부) 요인과의 사용 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임귀인 프레임 차원에서의 문화심리학적 편향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책임귀인 프레임

구분	책임귀인 프레임			계
	상황적(외부)	개인적(내부)	상호작용적(내 · 외부)	
지상파	379(43.5)	434(49.8)	59(6.8)	872(100)
종합편성채널	374(38.8)	484(50.3)	105(10.9)	963(100)
계	753(41)	918(50)	164(8.9)	1,835(100)

주: 괄호 안은 책임귀인 관점의 상대적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chi^2(2) = 11.174,\ p =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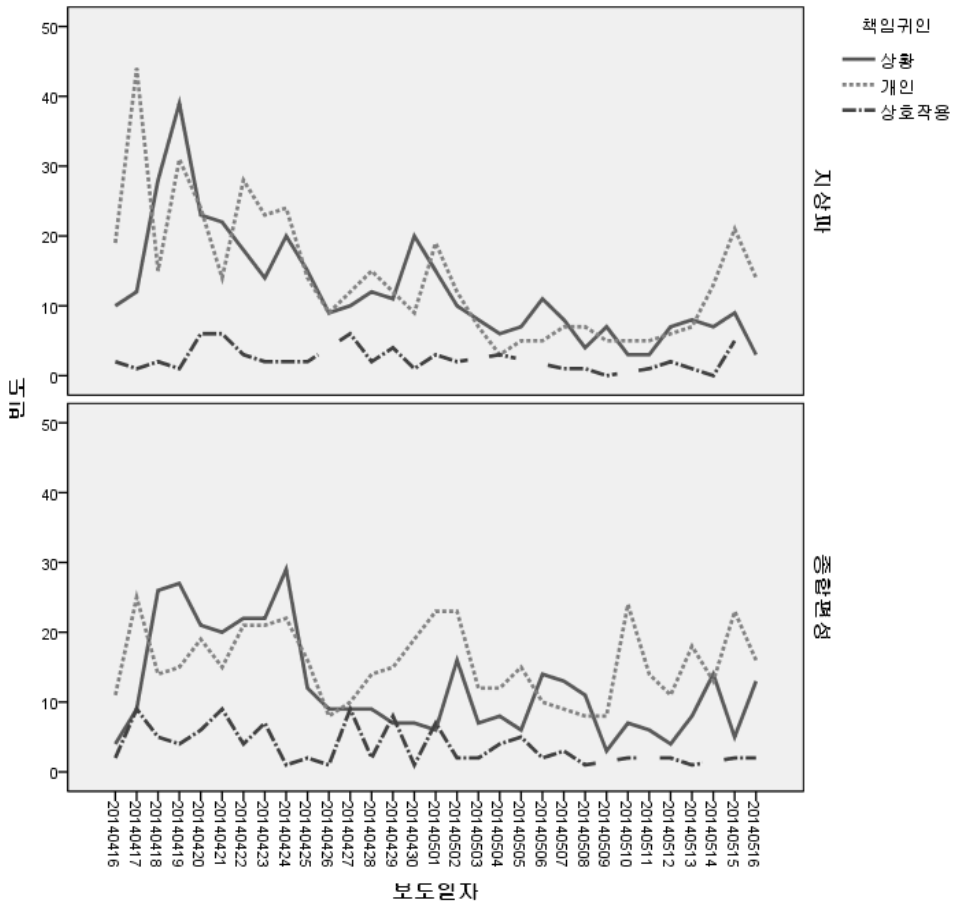

그림 5.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책임귀인 프레임의 변화

연구 문제 4-2는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책임귀인에 대한 기자의 사고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5〉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에 나타난 책임귀인 프레임 사용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세월호 사고 초기, 중반, 후반 모두 상황적(외부) 요인과 개인적(내부) 요인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반면, 상호작용적(내·외부) 요인은 사용 빈도가 낮았다. 종합편성채널 3사의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는 상황적(외부) 요인이 개인적(내부) 요인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었으나 사고 중반과 후반에는 개인적 요인이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적(내·외부) 요인은 사고 중반에 사용 빈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사용 빈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지상파의 경우 책임귀인은 동양적 사고 패턴인 상황요인과 개인과 상황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상호작용 요인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에 반해 종합편성채널은 상황요인, 개인요인, 상호작용 요인이 사고 발생에서 수습 과정에 매우 불규칙적으로 움직여 문화심리학적 논거를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5)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의 문제 해결 관점 및 변화

연구 문제 5-1은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문제 해결 프레임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인 일화적 프레임과 문제 해결을 사회공동체, 정부, 국가 등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인 주제적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에 더 편향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방송사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 기사는 문제 해결 프레임 중 주제적 프레임 1,344건(82.5%)으로 일화적 프레임 286건(17.5%)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문제 해결 프레임 사용의 차별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의 문제 해결 프레임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방송사에 따른 문제 해결 프레임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 0.483$, $p = .487$〕.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 모두 문제 해결 프레임 중 주제적 프레임을 각각 83.1%, 81.8%씩 지배적으로 사용했다. 결국 문제 해결 프레임 차원에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는 집단에 책임을 두는 주제적 프레임에 편향된 보도를 했다.

연구 문제 5-2는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에서 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기자의 사고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6〉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3사에 나타난 문제 해결 프레임 사용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사고 초기에는 주제적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사고 중반에는 주제적 프레임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하지만 주제적 프레임은 사고 중

표 7.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문제 해결 프레임

구분	문제 해결 프레임		계
	일화적	주제적	
지상파	141(16.9)	693(83.1)	834(100)
종합편성채널	145(18.2)	651(81.8)	796(100)
계	286(17.5)	1,344(82.5)	1,630(100)

주: 괄호 안은 문제 해결 관점의 상대적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chi^2(1) = 0.483,\ p =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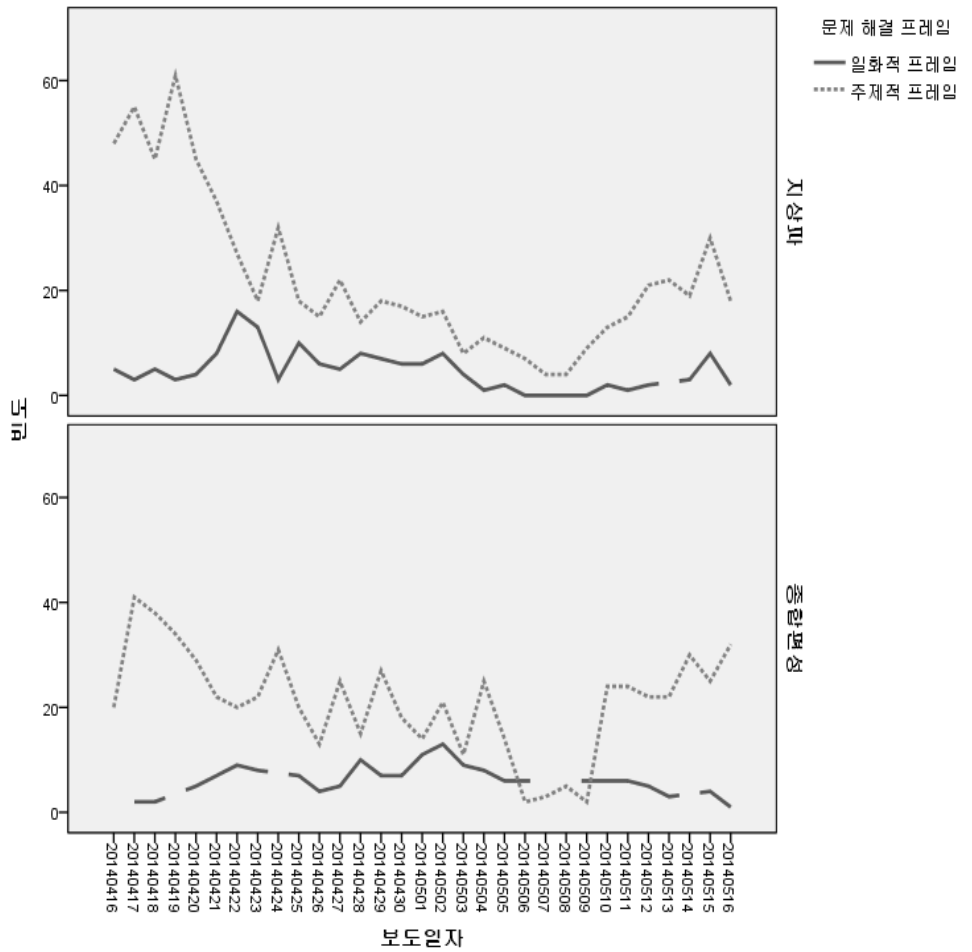

그림 6.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문제 해결 프레임 사용의 변화

반과 후반에서 일화적 프레임에 비해 여전히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사고 후반에서는 주제적 프레임의 사용 빈도가 급증하였다. 종합편성채널 3사의 경우 역시 사고 초기에는 주제적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사고 중반에는 주제적 프레임의 사용 빈도가 감소세를 보이며 증감을 반복하였다. 사고 중후반에는 주제적 프레임의 사용 빈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주제적 프레임의 사용 빈도가 급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주체에 있어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모두 동양적 사고 패턴인 주제적 프레임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 문화심리학적 이론을 뒷받침했다.

6. 결론 및 함의

방송은 영상과 말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재난 현장을 어떻게 구성해 비추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 배경음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재난 현장은 전혀 다른 현실로 비춰진다. 방송기자가 리포팅 과정에 잘못된 언어나 기법을 사용하면 다수의 시청자는 현장의 실제 상황을 과잉 또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재난 사고에 대한 방송 보도의 프레임 구성 방식에 따라 사고 원인, 사고 예측, 책임 소재, 책임 귀인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 방송 뉴스가 어떤 관점으로 편향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 보도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실성(facticity) 기사에서 사고 원인, 사고 예측, 책임 소재 및 귀인, 문제 해결 등을 다루면서 어떤 문화적 편향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는지 문화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고 예측성, 책임귀인, 문제 해결 주체 등의 일부 항목에서 동양적 사고 습관 편향성이 발견됐다. 사고 예측성에서는 "세월호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식의 사전적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로 규정해 보도했다. 다시 말하면, 사고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간주하는 이른바 '사후과잉확신 편향' 혹은 '후견지명효과'를 뚜렷이 드러냈다. 책임귀인에서도 내부요인 또는 내외부 상호요인이 외부요인과 서로 엇비슷하게 나타나 동양적 사고편향이 부분적으로 발견됐다. 이것 역시 '나도 잘못이고(옳고), 너도 잘못이다(옳다)'는 양비쌍시론적 관점에서 책임귀인을 했다는 점에서 일면 모순적이다. 동양 문화는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을 강조하는 서양 문화와는 달리 종합적이고 변증법적인 사고 습관이 두드러진 편이다. 그리고 사고의 문제 해결 주체에서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일화적 프레임 보다는 제도나 사회에 두

는 주제적 프레임 편향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 역시 사고 원인의 실체적 책임자와 관계없이 사회나 국가단위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삼는 동양적 문화 편향성이 두드러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서는 동양적 사고편향 보다 서양적 사고편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나타났다. 사고(혹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개별적 특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상황적 조건은 무시하는 서양 사회의 사고 습관인 '기본적 귀인 오류'가 적어도 세월호 사고 원인 보도에서는 적었다. 그러나 이는 사고 원인에서 상황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지 자체 비율은 상당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간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책임 소재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다는 단일 입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사고 패턴은 적은 편이었다. 이는 변증법적 논증에 익숙한 동양보다는 "어는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그르다"는 서양의 비변증법적 또는 비모순의 원리(principle of noncontradiction)가 더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문화심리학적 논지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세월호 사고발생은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을 선주인 유병언 일가, 선장과 선원 등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책임 소재에서도 개인에게 있다는 단일 입장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동양적 사고편향성이 확연히 드러난 기존의 의견성 기사연구(이완수 · 배재영, 2014)와는 물론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보도 규범이나 원칙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사실성 기사에서도 기사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이 개입하는 문화근본주의의 배경이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월호 재난사고 보도 과정에 '안전불감증', '대충주의', '안이한 안전의식'과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에 대한 프레임을 자주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동양적 사고 습관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고 원인, 책임귀인, 책임 소재 등 사고 평가 프레임이 시간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귀인에 대해 일부 관점이 분열적으로 나타났으나 사고 수습 진행 내내 비슷한 사고 패턴으로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기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도 프레임의 변화를 준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문화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해 설명하면 문화적으로 고착되어진 사고 습관은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방송 보도도 프레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저널리즘 규범보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사고 패턴에 더 영향을 받는 일관된 문화적 규범에 더 의존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몇 가지 함의점이 있다. 첫째는 보도규범적 측면에 편중되어 진행된 기존 저널리즘 연구를 확장해 동서양이라는 문화심리적 인지 구조와 사고 습관이 사고 뉴스 작성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확장에 기여했다. 스토킹과 그로스(Stocking & Gross, 1989)의 지적대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습관적 또는 인지적 편향성은 뉴스 작성 연구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범(典範)적으로 강조되는 사실성 기사 작성에 문화적 사고 습관이 작용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그동안 기자의 사고, 인지, 추론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글쓰기인 칼럼이나 사설에 반영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기자가 사회문화적으로 습득하고 체화된 사고 습관이 객관적 글쓰기에 속하는 일반 기사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문화심리학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순수 스트레이트 기사만으로 되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방송기사에서 동양적 사고방식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성 기사에서도 문화심리적 요인이 기사작성 과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학습되고 경험된 결과가 기사작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저널리즘 객관주의가 보편적 개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온 기자의 사고 습관은 뉴스보도 과정에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책임 소재에서 뉴스의 프레임이 개인에서 정부나 사회로 전이되는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보도패턴을 보였다. 물론 모든 내용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동양적 사고 패턴이나 서양적 사고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사고가 뉴스 구성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기자가 사회적 상황변화나 조건에 따라 내용이나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변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화적 사고나 인지 방식은 뉴스를 규범적으로 제작하는 저널리즘의 작업 행위에 우선한다는 의미도 된다. 넷째는 사고의 진단과 평가에 대한 관점에서 문화적 사고편향성이 분열적으로 나타난 점은 뉴스 프레임 연구과정에 사회문화적 요인을 조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화심리학자가 주장하는 문화본질주의가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에서는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책임 소재에서는 양비론적 입장보다는 단일입장이, 책임귀인에서는 내부요인이 외부요인 못지않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화본질주의 관점에서 뉴스 프레임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매체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이 동일한 문화

권에서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접근하는 점도 문화근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몇 가지 설명이 덧붙여 질 필요가 있다. 우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문화 간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심리학자는 최근 정보, 지식, 사상, 문화의 글로벌화가 이뤄지면서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로, 서양 문화는 동양 문화로 상호수렴이 이뤄진다고 말한다. 이런 문화수렴주의는 동양 문화에서도 서양적 사고를, 반대로 서양 문화에서도 동양적 사고를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문화심리학자는 최근 동서양 문화 차이를 문화상대주의로 접근하기보다는 두 문화가 서로 배우고,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수렴 가능한 쪽으로 접근하는 문화수렴주의의 가치를 더 강조한다(Nisbett, 2004). 다른 하나는 기자가 넓게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세계관과 사고 체계를 갖지만 좁게는 기사의 작성 원칙과 내부 규범에 근거해 보도하기 때문에 문화적 습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예를 들어, 전통적 보도 규범과 과정을 중시하는 지상파와 파격적 포맷과 양식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종합편성채널이 동일한 재난 사고를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도 그 이유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재난 사고에 대한 언론의 이런 습관적 사고에 따른 편향적 프레임 구성은 사고의 원인과 본질, 구조 과정과 절차, 책임의 소재와 주체 그리고 문제 해결의 대상과 주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을 마치 예견할 수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찾는 사후적 노력을 소홀하게 만든다. 사고 책임에서도 사고 자체(예, 대상과 사람)의 개별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상황 논리와 같은 집단성으로 귀인함으로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낳는다. 이는 사고는 일어났지만 어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른바 '책임자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도 사고에 직접 관계된 대상(예, 제도 법률, 관행 등)이나 인물이 아닌, 정부나 사회로 집단화함으로써 사고의 개별성에 따른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기자의 문화적 편향 습관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고의 본질을 잘못 독해하거나 그릇되게 평가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 작성 과정에 유의가 필요하다. 저널리즘 작업 측면에서도 함의점이 있다. 기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온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실과 정황을 변증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저널리즘은 정서적이고 이념적으로 보도하는 비과학성도 문제이지만 이슈의 원인과 책임을 모호하게 진단하는 변증법적 논증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양 문화의 사고 체계인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비모순의 원리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 방송언론이 보도 규범이나 원칙보다 문화적 배경 차이나 그 사회공동

체 속에 널리 퍼진 집단적 관행이나 의식에 따라 진화되고 주조된 사고 습관에 더 지배받는다는 관점을 검정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자의 머릿속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밝혀봄으로써 뉴스가 작성되고 생산되는 과정에 문화적 사고 습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분석 기간이 짧은 데이터로 문화심리학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점,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을 분리해 살펴본 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월호 이슈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지 못한 점, 보도 규범에 방점을 둔 프레임과 특정 사회의 집단적 인지와 추론을 대변하는 문화심리학적 접근을 결합해 분석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방송 뉴스의 의견성 기사를 사실성 기사와 조응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고이슈에 대한 문화적 사고(思考) 편향성이 서양 언론의 보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재난 사고 보도가 국가 간 또는 문화권 간에 상호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김왕근 (2014).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서울: 미래를소유한사람들.

김호성 외 (2014).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방송기자연합회.

박재영 · 이완수 · 노성종 (2009). 한미신문의 의견기사에 나타난 한국기자와 미국기자의 사고 습관 차이.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268-290.

양승찬 · 이미나 · 서희정 (2014).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방송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권 14호, 127-167.

이동훈 · 김원용 (2012).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프레임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완수 · 배재영 (2014). 〈뉴스에 대한 습관적 기록과 묘사: 세월호 사고 의견기사와 사진기사에 나타난 문화심리학적 편향성〉. 한국언론학회 2014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과 사회 분과. 서울: 고려대학교.

이완수 · 심재웅 · 심재철 (2008). 미디어 현저성과 프레임 변화의 역동적 과정: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386-412.

조은영 · 유세경 (2014).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노조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433-461.

최인철 (2007). 〈프레임〉. 서울: 21세기북스.

Bae, H. S. (2000). Product differentiation in national TV newscasts: A comparison of the cable all-news networks and the broadcast network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1), 62-77.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NY: General Learning Press.

Berkowitz, D., & TerKeurst, J. V. (1999). Community as interpretive community: Rethinking the journalist-source relatio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49*(3), 125-136.

Blumler, J. G., & Gurevitch, M. (1975). *The crisis of public communication*. New York, NY: Routledge.

Chyi, H. I., & McCombs, M. (2004). Media salience and the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lumbine school shooting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22-35.

Dimitrova, D. V. (2006). Episodic frames dominate early coverage of Iraq War in the NYTimes.com. *Newspaper Research Journal*, *27*(4), 79-83.

Downs, A. (1972). Up and down with ecology-the issue-attention cycle. *Public Interest*, *28*, 38-50.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Eyal, C. H. (1981). The roles of newspapers and television in agenda-setting. In G. C. Wilhoit & H. DeBock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2* (pp. 225-234). Newbury Park, CA: Sage.

Fowler, R. (2007).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New York, NY: Routledge.

Freelon, D. (2010). ReCal: Intercoder reliability calculation as a web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Science*, *5*(1), 20-33.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unaratne, S. A. (2000).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London: Sage.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 S. (2010). Cultural differences in thinking styles. In B. Glatzeder, V. Goel & A. Müller (Eds.), *Towards a theory of thinking*: *Building blocks for a conceptual framework* (pp. 279-288). Berlin, Germany: Springer.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won, K. H., & Moon, S. I. (2009). The bad guy is one of us: Framing comparison between the US and Korean newspapers and blogs about the Virginia Tech shooting.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9*(3), 270-288.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NY: Macmillan.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971.
Muschert, G. W., & Carr, D. (2006). Media salience and frame changing across events: Coverage of nine school shootings, 1997-2001.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4), 747-766.
Neuman, W. R., Just, M. R., & Crigler, A. N. (1992). *Common knowledge*: *News and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meanin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isbett, R. E. (2004).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Nisbett, R. E., & Masuda, T. (2003). Culture and point of view.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63-11170.
Nisbett, R. E., & Miyamoto, Y. (2005). The influence of culture: Holistic versus analytic percep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10), 467-473.
Nisbett, R. E.,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in social judge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Scheufele, D. A. (2000).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2-3), 297-316.
Sc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2nd ed.).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Shoemaker, P. J, Reese, D. J.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NY: Longman.
Stocking, S. H., & Gross, H. P. (1989). *How do journalists think?*: *A proposal for the study of cognitive bias in newsmaking*.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Valkenburg, P. M., Seme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Winfield, B. H., Mizuno, T., & Beaudoin, C. E. (2000). Confucianism, collectivism and constitutions: Press systems in China and Japan.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5*(3), 323-347.
Yang, J. (2003). Framing the NATO air strikes on Kosovo across countries: Comparison of Chinese and US newspaper coverage. *Gazette*, *65*(3), 231-249.
Zhou, X. (2008). Cultural dimensions and framing the Internet in China: A cross-cultural study of newspapers' coverage in Hong Kong, Singapore, the US and the UK.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0*(2), 117-136.

최초 투고일 2015년 4월 8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26일

Abstract

Way of Thinking and News Construction:

A Research of Cultural Psychology of Sewol-ho Ferry Disaster's Factual News Frame

Kweon, Sang-He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Lee, Wan-Soo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Hwang, Kyung-Ho
Ph. D student,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news frame in Sewol-Ho incident from April 16 to May 16, KBS1, MBC, SBS and JTBC, TV Chosu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inking habits (way of thinking) and news frames. This research conducted frame analysis for three terrestrial broadcasting (KBS, MBC, SBS) is 2,097 cases and three comprehensive broadcasting channels (JTBC, TV Chosun, channel A) is 1,894 cases of news coverage. The categories of news analysis is the cause of the accident analysis, accident prediction, an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problem solving frame in reality (facticity) news. The results show that oriental thinking habits is founded in the frame of accident predictability, responsibility attribution, problem solving. In the accident predictability there are some formula in the news coverage such as "No. accident years was warning the talent".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the way of East-Asia type thinking including the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or responsibility attribution in external situational factors appeared. There are often found in eastern thinking habits, for instance, troubleshooting the subject of the accident was presented anecdotal frame rather than mobilize more thematic frames. On the other hand, the causes of accidents and accident liability Western bias was more pronounced deflection than Eastern bias. In the conclusion, the result confirms that the Korean new coverage are more heavily influence on cultural and psychological bias than norms and principles of news coverag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how the news coverage is affected from cognitive processes and variables thinking habits.

Keywords: Sewol-ho ferry disaster's news, factual articles, news frame, cultural and psychological bias, thinking habits